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가 있다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마음자리' 를 깨우치자



## 총현선교교회, 미주복음방송 발달장애 컨퍼런스 공동주최



한인교회와 주류교회가 함께하는 발달장애 컨퍼런스가 오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LA 총현선교교회(담임 국윤권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총현선교교회와 미주복음방송(대표 이영선 목사)이 공동 주최한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장애인이 없는 교회는 곧 불완전한 교회'로, 장애인을 단순한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행사에는 주류교회 및 한인교회의 장애 사역 전문가, 특수교육·사회복지학 교수 등 총 18명의 전문가가 강연자로 나선다. 주요 강연자는 '예수와 장애' (Jesus & Disability)의 저자 크리스 H. 헬쇼프 교수로, 포용적 교회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제시하고 예배와 사역 속에서 장애인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조연설은 다운증후군 자녀를 둔 김바나바 목사(켄츠한인교회)와 리더아 킴 박사가 맡아, 교회와 가정의 함께 만들어가는 포용적 신앙 공동체의 비전을 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18명의 강연자들이 발달장애인의 성인지 자립과 돌봄, 장애인을 품는 설교와 묵회, 모두가 함께 드리는 예배, 돌봄자(부모)를 위한 자기 돌봄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행사 일정은 10월 17일 오후 5시부터 18일 오후 8시까지이며, 장소는 총현선교교회(5005 Edenhurst Ave. LA)다. 참가비는 개인 100달러이며, 3인 이상 단체 등록 시 1인당 50달러다. 학부 및 대학원생에게는 20% 할인이 적용된다. 또 발달장애인 부모 선착순 100명은 참가비 전액이 지원되며, 자녀 돌봄 서비스도 선착순 25명에게 제공된다.

▶등록, 문의: www.k-churchconference.org (714)484-1190

정말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닌 이치를 깨달은 무소득(無所得)의 경지라면 불쌍한 중생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고, '나'를 위해서는 할 일이 없지만 중생제도를 위해서는 할 일이 많고 잠도 자지 않는 자비심이 있게 됩니다.

오직 남을 위해 주는 '자비심', 어두움이 없는 '밝은 지혜', 중생들을 모두 괴로움으로부터 건져 내고야 말겠다는 '위대한 원력', 이것이 '깨달은 이'의 마음이고, 불보살의 마음이며, 무소득의 경지입니다. 중생들의 괴로움은 모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지식을 얻어야겠다, 재산을 모아야겠다, 미인을 얻어야겠다, 권력을 얻어야겠다." 하는 욕망이 일체고(一切苦)를 가져옵니다. 가령 세계에서 가장 좋은 보석을 한 개 선사받았다고 하면,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잡니다. 도둑이 언제 담을 뛰어넘어 올지 모르고, 언제 어디서 강도를 만날지, 택시를 타고 가도 안심이 안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안심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마음에 소득이 있으면 안심이 안됩니다.

무엇을 얻었는지 어떤 미인과 연애를 해도 마음이 편치 않고 미남자와 연애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여자하고 좋아하는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이 있는가 싶어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런 소득에 관심이 없으면 잠이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항상 편안합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도 구애될 것이 없고, 참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 아무 소득이 없고, 아무 것도 필요 없고, 부처도 필요 없습니다. 부처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나의 생사가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 진실로 부처가 좋아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생사를 초월해서 부처가 된다는 것은 결국 부처도 열반도 구하지 않는 무소득의 '마음자리'를 찾는다는 결론이 됩니다.

'마음'은 본래 구애가 없습니다. 아무 데도 거리낄 것이 없는 진공과 같은 '마음', 불법을 닦아야 할 필요도 없고, 망상이 없으니 망상을 떼어내 버릴 일도 없고, 아무 데도 걸릴 데가 없습니

다. 지구만한 보석이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데도 내 '마음'이 걸리고 거북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얽매는 것이 재물입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큰 돈을 벌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런 줄 아는 사람은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귀를 씻게 됩니다. 세계를 다 차지해서 그 번뇌 덩어리를 맡아 잠 못 자고 '마음'만 흔들리는 데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세계의 미인을 몽땅 데려다 준다고 해도 그것이 다 귀찮고, 미인이면 미인이지 육체가 아닌 '나'에게 무슨 상관이라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계행을 지키고 정진(精進)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야'의 '마음자리'를 깨치면 하지도 않고 안하지도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러고 나면 하면서도 안하는게 되고 안하면서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청담 스님-

##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년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 - 29점	30점 - 39점
매월 프리미엄	\$518	\$285

###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5년 현재 185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 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예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를 맞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82	\$2,555
Asset Limit	\$17,220	\$34,36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6400643@gmail.com  
T. 714.872.9377